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축하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분,

북측 아태평화위 이종혁 부위원장과 함께 오신 손님들,

그리고 우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해 멀리서 오신 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4주년을 맞아 국제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남북한 연구기관이 함께 이와 같은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측에서 오신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임동원 전 장관과 정창영 연세대 총장, 이종혁 아태 부위원장께서 해주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별연설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큼니다. 아주 성공적인 토론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000년 6월 15일 남북한 정상이 서로 얼싸안는 사진은 지금도 세계 벽찬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감격이 생생합니다. 그 사진 한 장은 온 겨레의 화합과 평화의 가능성을 심어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전 세계가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대립과 반목의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일어난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남북 당국간 회담이 100여 차례 이상 열리고, 인적·물적 교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개발 등이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상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로 한 것은 또 하나의 큰 진전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의 선전방송도 오늘부터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과거 50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들입니다. 이 모두가 6·15공동선언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값진 성과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참여정부는 햇볕정책과 6·15정신을 계승·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질서가 구축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간 신뢰구축입니다.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핵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교류와 협력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은 그 자체가 핵문제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간 협력은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대비해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각종 인프라 확충과 산업생산능력의 향상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철학이 있는 대통령이셨습니다. 햇볕정책이야말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내다보는 원대한 철학적 구상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담은 6·15공동선언을 착실히 실천하고 이행해 나갑시다. 반드시 성공한 역사로 만듭시다. 남북관계 발전의 주역이신 여러분이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축하드리며, 그동안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써 오신 많은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